

‘도약’과 ‘추락’ 갈림길... ‘진짜 실력’ 검증 시험대

KIA 주간 전망대

원정 KT戰 ‘전력 보완 재정비’·홈 롯데戰 ‘승수 쌓기’ 호기 투타 균형 ‘승리 공식’ 증명...제동 걸린 상승세 끌어올려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순위의 경계선에서 한 주를 맞는다.

이번 6연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상위권 진입의 발판이 될 수도, 다시 중하위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무대다.

20일 기준 KIA는 10승 9패 (승률 0.526)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선두 삼성과의 격차는 3경기. 중위권이 좁 좁하게 형성된 가운데, 순위 변동 가능성이 큰 위치다.

지난주 흐름은 분명 반등이었다. 하위팀 상대로 4승 2패를 거두며 연승을 8경기까지 늘렸다.

하지만 주말 2연패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올라섰지만, 아직 안착 단계는 아니다.

이번 주 판은 명확하다.

주중 KT와의 수원 원정 3연전이 핵심이다. 8연승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 관건이다.

KT는 현재 2위에 올라 있는 상위권 팀이다. 팀 타율 (0.285) 1위, 팀 평균자책점 (ERA 3.95) 2위. 공수 균형이 안정돼 있고,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다. KIA 입장에서는 현재 전력이 경쟁력인지, 반짝인지가 판가름 나는 시리즈다.

초반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 KT는 리드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팀이다. 선발이 버티지 못할 경우 경기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태형-네일-이희리가 차례로 선발로 나선다.

주말에는 9위 롯데와 광주 홈 3연전을 갖는다. 상대 전력상 승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롯데는 지난주 1승 4패에 그치며, 3연패에 빠졌다. 주간 타율 (0.209)과 볼펜 ERA (6.38)가 리그 최하위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지난 시즌 맞대결



김도영

성적도 8승 8패로 호각세다. 주중 결과가 좋아도 주말을 놓치면 분위기는 다시 꺾일 수 있다.

결국 이번 주는 ‘검증’이다. 근거는 이미 나왔다.

지난주 KIA 타선은 타율 0.288으로 2위, 득점권 타율 0.387로 1위를 기록했다.

찬스를 점수로 연결하는 힘이 돋보였다. 연승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김선빈과 김호영이 4할대의 맹타를 휘둘렀고, 김도영은 홈런 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김선빈

마운드도 버렸다. 같은 기간 팀 평균자책점 3.2로 3위. 선발과 볼펜이 기본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마지막 2경기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특점 타율이 0.278 (6위)로 떨어졌고, 팀 평균자책점은 5.19 (7위)로 높아졌다. 특히 구원 ERA는 7.11 (10위)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후반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답은 뚜렷하다.

방망이가 매번 터질 수 없는 만큼, 투타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선발이 버티고, 뒷문 운영이



김호영 <KIA 타이거즈 제국>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득점권 집중력은 기본이다.

지금 KIA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확인했다. 다만 이기는 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주 6연전이 그 차이를 증명할 시간이다. 상위권으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KIA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된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20일 기준)

| 순위 | 팀명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
| 1 | 삼성 | 12 | 5 | 1 | 0.706 | 0 |
| 2 | kt | 13 | 6 | 0 | 0.684 | 0 |
| 3 | LG | 12 | 6 | 0 | 0.667 | 0.5 |
| 4 | SSG | 10 | 8 | 0 | 0.556 | 2.5 |
| 5 | KIA | 10 | 9 | 0 | 0.526 | 3 |
| 6 | 한화 | 8 | 10 | 0 | 0.444 | 4.5 |
| 6 | NC | 8 | 10 | 0 | 0.444 | 4.5 |
| 8 | 두산 | 7 | 11 | 1 | 0.389 | 5.5 |
| 9 | 롯데 | 6 | 12 | 0 | 0.333 | 6.5 |
| 10 | 키움 | 5 | 14 | 0 | 0.263 | 8 |



지난해 장성 열루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모습.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 넘어 하나로’ 전남장애인체전 구례서 개막

내일부터 3일간 21개 종목 열전

전남 장애인체육인들의 우정과 화합의 대추 제인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22일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21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자연의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남장애인체전은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육상, 수영, 보치아,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전남장애인체전은 지난 30여년 동안 장애인의 체육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도민이 하나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회를 통해 전남장애인체육의 실력 향상과 더불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남장애인 체육을 빛내는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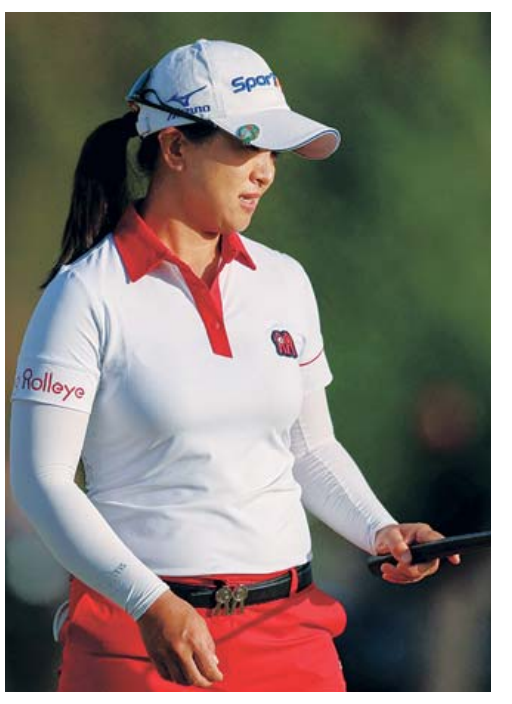
대회를 개최하는 구례군과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장 시설 점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본격 손님맞이에 나선다.

22일 야외행사로 진행되는 개회식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가수 진성, 김준수, 윤수현 등의

다양한 무대가 이어져 대회 분위기 고조는 물론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지리산과 섬진강 등 구례의 자연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체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성대한 지역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팀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전남 단독 장애인체육대회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선수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는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김세영이 20일 열린 JM 이글 L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퍼트를 마치고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세영, 첫 승 문턱 통한의 연장패

LA챔피언십 1위 달리다가 임진희·그린과 동타...연장서 무릎

김세영이 눈앞에 뒀던 우승 트로피를 놓쳤다.

김세영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엘카버예로CC에서 열린 LPGA 투어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연장 승부 끝에 해나 그린(호주)에게 패해 임진희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15언더파로 공동 2위 그룹에 두 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세영은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합해 2언더파 70타를 쳤고,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그린, 임진희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승부는 18번 홀 (파4)에서 펼쳐진 연장에서 갈렸다.

김세영과 임진희는 18번 홀 연장에서 모두

파에 그쳤지만, 그린은 공격적으로 코스 공략에 나선 뒤 긴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은 3라운드에서도 2위권을 큰 격차로 앞서다가 막판 4연속 보기를 범하며 추격을 허용했는데, 이날도 뒷심 문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6개월 만의 우승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윤이나는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LPGA 투어에 입성한 윤이나가 ‘톱5’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전 최고 성적은 지난 달 포드 챔피언십에서 기록한 공동 6위였다. /연합뉴스

“팬들과 더 많은 경기 하고 싶어”

와일드카드 정현, 제이슨 정과 광주오픈 단식 32강 맞대결

‘한국 테니스 간판 스타’ 정현(29·김포시청)이 빛고을 코트에 출격해 국내 정상급 기량을 선보인다.

정현은 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는 2026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본선 1라운드(32강)에서 ‘강호’ 제이슨 정(ATP 단식 289위·36·대만)과 첫 경기를 치른다.

제이슨 정은 2016년 청두, 2017년 장자강, 2018년 샌프란시스코, 2019년 광주오픈 등 챌린저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 랭킹 114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나이로 주로 복식 경기에만 출전하고 단식 출전 경험이 적다. 때문에 젊은 패기를 앞세운 정현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할 상태다.

정현은 20일 공식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 등 국제대회에 꾸준히 출전에 왔고, 대회 직전에는 경기를 쉬며 훈련에 집중했다”며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며 전반적으로 점점했다. 체력과 전술 등 여러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하며 팬들과 더 많이 호흡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오픈에 대한 인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현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라 편안함이 크고,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코트 환경과 경기장 분위기 모두 만족스럽다”고 말

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에서의 수비와 움직임이 강점”이라며 “특정 장점 하나를 꼽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팬들에게는 “국내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오픈에는 정현을 비롯해,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 박의성(25·대구시청)이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부터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 단식 16강과 복식 8강에 올랐던 ‘구레 출신’ 박의성(ATP 716위·대구시청)은 이번 대회 1번 시드인 쇼시마부쿠로(일본·ATP 108위)와 격돌한다.

대회운영위원장을 맡은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민중화의 성지이자 예향의 도시, 그리고 맛의 도시 광주에서 국제남자챌린저대회를 개최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수준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한국 테니스 간판 스타’ 정현과 박의성이 2026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첫 날인 지난 19일 광주시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팬 사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